건강이슈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채충만, 전명은, 이동한**

매년 7월 28일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제고와 회원국의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촉구를 위해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이다. 2008년 세계 간염 연합(World Hepatitis Alliance)과 환자 단체가 선언한 제 1회 세계 간염의 날은 7월 28일이 아닌 5월 19일이었으나, 2010년 5월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결의를 통해 B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197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루크 블럼버그(Baruch Samuel Blumberg)의 생일인 7월 28일을 세계 간염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간염의 날은 WHO에서 공식 지정한 감염병과 관련된 5개의 기념일 중 하나로 세계 간염의 날 외에 「세계 결핵의 날」, 「세계 샤가스병의 날」, 「세계 말라리아의 날」, 「세계 에이즈의 날」 등이 공식 지정되어 있다.

올해 「세계 간염의 날」은 2030년까지 공중보건 위협으로써 간염 퇴치를 위한 노력의 긴급함을 강조하고자 「간염, 지체할 수 없습니다(Hepatitis can't wait)」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간염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 간염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간염 퇴치를 위한 통합적 접근과 국가계획 마련 등을 지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worldhepatitisday.org/

WHO는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계 고위급 토크쇼를 진행한다. 세계 고위급 토크쇼에서는 국제, 지역, 국가 지도자와 정책결정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2030년까지 간염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간염 대응 방안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이야기와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추후 참석 연사에 대한 정보와 등록 및 접속 정보는 WHO 홈페이지[1]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속 주소: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1/07/28/default-calendar/world-hepatitis-day-2021)

세계 간염 연합에서도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세계 간염의 날을 지지하는 내용의 30초 이내 영상을 세계 간염 연합의 이메일 주소(contact@worldhepatitisalliance.org)로 보내면 세계 간염 연합의 SNS에 게시하는 행사와 시계를 가리키는 사진을 해쉬태그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행사 및 캠페인 관련 정보는 세계 간염 연합 홈페이지(http://worldhepatitisda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2].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B형간염 표면항원 유병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5%, C형간염 항체 유병인구는 전체 인구의 0.7%이다[3].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공중보건 위협으로써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기존의 HIV/간염/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국제 보건 분야 전략(2016-2021)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7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2-2030년에 대한 새로운 국제 보건 분야 전략 수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새로운 보건 전략에 연계한 국가 간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황평가를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1. WHO 세계간염의 날 홈페이지 (https://www.who.int/campaigns/world-hepatitis-day/2021)
2. 세계 간염 연합 홈페이지 (https://www.worldhepatitisday.org)
3.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국민건강통계